

법흥왕[法興王]

율령과 불교로 나라를 다스리다

미상 ~ 540년(법흥왕 27)



경주 법흥왕릉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법흥왕(法興王, ?~540)은 신라 제23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514년~540년이다. 그는 신라 전역에 적용되는 법제를 왕의 이름으로 만들어 시행하였고, 불교를 국가 차원의 종교로 인정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이념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법흥왕대 신라는 초기 독자적인 지역 집단인 부(部)들의 연합체적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2 가계와 생애

법흥왕은 지증왕(智證王)의 장남으로 514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즉위한 후, 540년 사망할 때까지 신라를 다스렸다. 그는 키가 7척(약 170cm 정도)였고, 성품이 너그로우면서 후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본명은 모죽지(牟陒智)로 원종(原宗), 무죽지(另郎知), 모진(募秦, 慕秦) 등으로 적기도 했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또 그전까지 신라왕들이 자신의 본명을 왕명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한 일을 강조하여 법흥이라는 별도의 왕명을 사용하여 주목된다.

어머니는 지증왕비인 연제부인 박씨(延帝夫人 朴氏)로 이찬(伊飡) 등흔(登欣)의 딸이다. 법흥왕에게는 입종갈문왕(立宗葛文王), 신라 당대 기록에는 사부지갈문왕(徙夫智葛文王)이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법흥왕 다음에 왕위에 오르는 진흥왕(眞興王)의 아버지이다. 또 어사추여랑(於史鄒女郎)이라는 누이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사료](#)

왕비는 보도부인 박씨(保刀夫人 朴氏)로 이름은 부갈지(夫乞支)이다. 왕비와의 사이에서 딸 지소부인(只召夫人)을 낳았는데, 그녀는 삼촌인 입종갈문왕과 결혼하여 진흥왕(眞興王)을 낳았다. 지소부인은 진흥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초반에 섭정도 하였다. 다른 자녀가 더 있었는데, 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의 사망시점에 아들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법흥왕 사후에 외손자이자 조카인 진흥왕이 즉위하기 때문이다.

법흥왕은 27년간 재위하다가 540년 7월에 사망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그의 무덤은 애공사(哀公寺) 북쪽 봉우리에 만들어졌다. [관련사료](#) 애공사란 절은 그 위치가 전하지 않아 정확히 어떤 무덤인지 알기는 힘들다. 현재 사적 제176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경주 법흥왕릉은 조선 영조대(英祖代)에 경주 김씨 문종에서 법흥왕릉으로 비정한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선도산 동쪽 기슭 태종무열왕릉 뒤편에 위치한 4기의 대형 고분(경주 서악동 고분군) 가운데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을 법흥왕릉으로 보고 있다.